즉시 배포용: 3/18/2015 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NIAGARA 카운티의 외래 유입종 퇴치가 성공적으로 끝났음을 알리다**

***14,400에이커에 대한 규제 철폐로 농장주들이 봄철 적시에 파종을 할 수 있게 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연속 3년 째, 검사관들이 뉴욕주 핵과(stone fruit) 나무에 발생한 외래 유입종 자두곰보병(Plum Pox Virus)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로, Niagara 카운티의 14,400여 에이커에 달하는 토지를 일구고 있는 농장주들이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일부 지역에서 복숭아, 자두, 천도복숭아, 살구를 포함해서 핵과 나무들을 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외래 유입종들이 성공적으로 박멸됨으로써 뉴욕 농업의 중요 지역들이 거의 15,000 피해 지역을 다시 한 번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농장주들은 자신이 생산한 것으로 생활을 영위하게 되었고, 과실수들을 심을 수 있게 되면서 목표를 달성하면서 뉴욕주에서 가장 중요한 업종 중 하나로 계속 발돋움해나갈 것입니다."

2014년, 뉴욕주 농업부 소속 검사관들이 Niagara, Orleans, Wayne 카운티에서 거의 120,000개의 표본을 채집하여 검사한 결과 모두 자두곰보병에 대해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는 14,400 에이커가 엄격한 규제 지역에서 덜 엄격한 방역 지역으로 해제되고, "식물 재배 금지 구역"에 다시 한 번 살구속 과실수들을 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검사는 미국동식물검역소로부터 받은 568,000 달러의 보조금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핵과 나무가 자두곰보병에 감염되자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나무 수명도 줄고 과일 모양도 시장에 내다팔 수 없을 정도로 변형되었습니다. 바이러스는 감염된 눈접용 접가지에서 또는 작은 곤충인 진딧물을 통해서 확산되었습니다. 자두곰보병은 인체에는 전혀 무해합니다.

뉴욕 Appleton에 소재한 Partner in Bittner-Singer Orchards의 Jim Bittn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규제철폐로 올해 새로운 15 에이커의 복숭아 과수원을 가꾸고 2016년에는 또 다른 20에이커를 가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숭아 나무는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유실수의 일부를 조만간 교체해야 합니다. 뉴욕주가 시행하는

이 새로운 조치로 신품종과 새롭고 보다 효율적인 작물 재배법을 갖고 농장을 가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지역 지정이 이뤄지기 이전에 Niagara 카운티는 미국에서 가장 늦게 자두곰보병이 창궐하는 곳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1999년 10월 미국 펜실베이니아에서 나타나 2009년에 이 주에서 박멸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 뉴욕주 Niagara 카운티에서 처음 등장한 후 나중에 Orleans와 Wayne 카운티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주 감사관들은 세 카운티 지역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Wayne과 Orleans 카운티는 2012년에 규제 지역에서 검역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두 카운티는 현재까지 총 5년의 음성 샘플에 대해 2년의 클린 모니터링(clean monitoring)을 실시했습니다. 2015년 설문조사로 두 카운티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두 카운티의 모든 나머지 제한 구역이 해제될 것입니다.

뉴욕주 농업부장관 Richard A. Bal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래 유입종은 우리의 발전하는 농업에 엄청난 위협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와 같은 좋은 소식은 꼭 축하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아직 우리가 뉴욕의 자두곰보병 박멸 활동으로 위험에서 벗어난 상태는 아니지만 농장주들이 다시 나무 심기를 시작했다는 사실은 Niagara 카운티 농업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곳 뉴욕의 외래 유입종 퇴지에 지속적으로 힘써주신 Cuomo 주지사와 모든 단계의 정부 및 업계 파트너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질병을 거의 박멸시킨데 성공한 것은 대부분 뉴욕주의 모든 과실수 및 양묘업자들의 협조 덕분입니다. Niagara 카운티의 자두곰보병 발견 이후, 농업 및 시장(Agriculture and Markets) 관계자들은 매년 뉴욕주의 모든 피해 과일 재배업자들과 개별적으로 만나 방역에 힘쓰고 지시를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작품 판매 가능 및 불가능 지역과 묘목 번식 가능 및 불가능 지역을 알 수 있도록 양묘업계와 협력하였습니다. 또한 핵과 나무를 판매하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 외래 유입종과 관련한 법규와 법칙을 잘 알 수 있도록 준수 합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주의 외래 유입종 퇴치를 위해 많은 프로젝트를 내놓았습니다. 2012년 7월, 주지사는 이 새로운 법은 환경 보존부 및 농업 시장부로 하여금 외래 유입종의 판매, 구입, 보유, 도입, 수입 및 운반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이 법은 또한 이러한 법칙을 위반하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지사는 다음 회계연도에 외래 유입종 확산을 막기 위한 환경보호기금을 100만 달러 늘릴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뉴욕은 많은 양의 핵과를 생산하는데, 복숭아, 천도복숭아, 자두 및 살구 재배 농지가 수천 에이커에 이릅니다. 뉴욕은 미국에서 11번째로 복숭아를 많이 생산하는 곳으로 2014년에는 11,156,000 달러에 달하는 6,680톤을 생산하였습니다.

농업 및 시장부의 작물생산업부는 연방 및 주 기관과 함께 농업 파트너들과 농지의 외래 유입종을 퇴치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는 뉴욕시와 롱아일랜드의 아시아 돌드레 프로그램, 롱아일랜드 및 Steuben, Seneca, Wayne을 포함한 일부 업스테이트 카운티 지역의 시스토 선충 프로그램, 뉴욕주 전역의 EAB(Emerald Ash

Borer)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상원의원 Patty Ritchi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농지들에 보다 과일 수확량이 많은 나무들을 심는 것은 이 지역 농장주들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들의 생활은 생산 가능한 작물에 달려있습니다. 자두곰보병을 안전하게 퇴치하고 뉴욕주 농업을 위해 이들 농지를 다시 한 번 이용할 ㅅ 있게 해주신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주하원의원 Bill Mage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농장주들의 안타까움 속에서 14,400 에이커의 농지가 제대로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Niagara 카운티에 발생한 이러한 외래 유입종에 대해 Cuomo 주지사의 성공적인 퇴치 전략으로 이 농지가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두 곰보병은 위험한 종이었습니다. 농장들이 이제 식품들을 생산하고 농업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뉴욕 농장청(Farm Bureau)의 Dean Norton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농장청은 자두곰보병 퇴치를 위한 NYSDAM의 활동이 이 지역에서 효과를 보았다는 것에 기쁘게 생각합니다. Niagara 카운티의 재배업자들은 다시 한 번 인기 있는 과일 품종을 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험을 줄이고 핵심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항을 확대하고자 하는 농부들에게는 다각화가 중요한 일입니다.”

Niagara 카운티 조사에는 캐나다 복숭아 과수원에서 이 병이 아직도 퇴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Niagara River 주변 지역에 대한 관심이 포함되었습니다. 올해 규제 지역에 묘목을 심기 전에 과일 재배업자 및 양묘업체는 (585) 370-1606으로 전화하여 자두곰보병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기를 바랍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